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윤 미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채 규 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윤 미

인 준 서

이윤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부모 및 또래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떤 구조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의 예측변인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인은 자기통제력으로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 부모·또래애착 척도(IPPA-R),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설문대상은 서울 소재 중학교 40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33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21.0과 Mplus 6.12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초통계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인 스마트폰 중독, 애착, 자기통제력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애착과 부애착, 또래애착 모두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대로 자기통제력과는 모애착과 부애착, 또래애착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지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을 완전 매개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반면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직·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otstrap 검증에서

자기통제력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 1. 스마트폰 중독
 - 1) 중독의 개념 8
 - 2) 스마트폰 중독 9
- 2. 애착
 - 1) 애착의 개념 12
 - 2) 청소년기의 부모애착 13
 - 3)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14
- 3. 자기 통제력 16
- 4.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 1)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19
 - 2) 애착과 자기통제력 22
 - 3)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24
- 5. 연구 문제 및 가설 26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28
- 2. 연구 설계
 - 1) 연구 변인 28

2) 모형 설정	29
3. 측정 도구	
1) 스마트폰 중독 척도	29
2) 부모·또래애착 척도	31
3) 자기통제력 척도	32
4. 자료 분석	33

IV. 결과

1. 기술통계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5
2)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36
3)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	38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9
5)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40
2. 연구 모형의 검증	
1) 구조 모형의 검증	41
2) 매개 효과의 검증	48

V.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의의	50
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5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30
<표 2> 부모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32
<표 3>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32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35
<표 5>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37
<표 6>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	38
<표 7>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39
<표 8>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40
<표 9> 측정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44
<표 10>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45
<표 11> 연구 모형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46
<표 12> 직·간접효과 검증 결과	48

그림 목 차

<그림 1>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모형	29, 42
<그림 2> 부모·또래애착 및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중독의 경로모형	47
<그림 3>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4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2년 IBM사에 의해 ‘사이먼(simon)’이라 불리는 마치 컴퓨터 같은 전화기가 발명되었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스마트폰(smart phone)이 되었다(위키백과). 0.5kg의 무게에, 기다란 벽돌모양이었던 최초의 스마트폰은 발전을 거듭하여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크기로 변화하였고, 그 기능 또한 다양해졌다. 발명 당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기존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대신하여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른바 ‘스마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다가 잠드는 것은 현대인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으며, 가정, 학교,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지하철 안에서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2014)에서 제공한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에 약 2천2백50만명, 2012년 12월에 약 3천2백70만명, 2014년 3월에 약 3천8백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국민일보, 2013), 미국의 IT시장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세계평균 14.8%보다 4.6배 높은 수치이다(Scott Bicheno, 2013).

스마트폰이란 일반 PC와 같이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3G, 4G, LTE, Wi-Fi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스마트폰 사용자는 기존 휴대전화에서도 가능했던 전화 통화나 메시지 교환 뿐 아니라 뉴스, 정보검색, 길 찾기 등의 생활정보 습득이나 학업과 업무에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게임, 웹툰, 음악 및 영화감상, TV시청과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일 것이다(김용훈, 2013). SNS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할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동성과 즉시성을 갖춘 휴대전화 기능에 PC의 기능이 더해져 많은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점점 더 현대인들과 밀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속출하는 문제들 가운데 건강과 관련하여 거북목증후군, 척추측만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척추 관절의 문제나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증, 수면장애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실적응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뇌구조가 변형되는 현상을 일컫는 ‘팝콘브레인’, 기억력이나 계산능력이 감퇴하는 ‘디지털 치매’ 등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뇌의 기능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NAVER 지식백과).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이다. SNS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대면관계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친구와의 현실상의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친구나 연인과 카페에 마주앉아서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듯 각자의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 인터넷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등) 이용이 89.2%로 다른 이용서비스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율은 다수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이용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9%가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계속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함과 동시에 현실상의 의사소통은 스마트폰에 의해 오히려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들은 기존의 게임, 인터넷, 휴대전화 중독과 같은 행위 중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밀착된 나머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고, 사용량을 조절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이 만 10세~49세의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11.1%가 스마트폰 중독자로 인터넷 중독률의 10.4%보다 높은 중독률을 나타냈다. 또한 임소은 외(2011)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용시간이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많으며, 이전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비해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PC와 휴대전화의 결합된 형태인 스마트폰의 매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보다도 청소년층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2013년 6월 전국 초·중·고 학교 11,410개교, 학생 6,282,7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초·중·고 스마트폰 보유현황’에 따르면 학교 급별로 초

등학생이 49%, 중학생 85%, 고등학생 84%로(교육부, 2013), 스마트폰 보유율은 성인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청소년층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한 스마트폰 중독의 연령별 비율 또한 청소년 18.4%, 성인 9.1%로, 청소년의 중독률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이 2013년 6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서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5.2%가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 27.6%는 잠재적위험군, 7.6%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과도기 상에 놓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에 비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이 실시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몰입 현상’에 대한 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78.0%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 한다’, ‘자기 전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53.1%)’, ‘스마트폰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14.7%)’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12~19세)은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그 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업 집중력 하락 및 주변 학생들의 수업방해로 이어지기도 하며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러한 현상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금창민, 2013).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내에서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많이 있으나 대체폰을

지니고 다니거나 방과 후 스마트폰에 더욱 몰입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스스로도 학업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을 인지하여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피쳐폰(feature phone)으로 바꾸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EBS, 2014). 한편,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따돌림 행위인 일명 ‘스마트폰 왕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를 그룹 채팅에서 소외시키는 전형적인 왕따 행위를 비롯해 와이파이 셔틀, 유료게임 강매 유도,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언어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여고생 A는 10여명의 친구들로부터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영남일보, 2014). 그 외 스마트폰을 통하여 각종 유해물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전국 중·고등학생 1만 5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음란물 경험률은 2010년 38.3%, 2011년 37.3%로 감소한 반면 휴대전화 성인매체 이용 경험률은 2010년 7.5%에서 2012년에 12.3%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PC보다도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물에 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보급 및 이용의 확산으로 인하여 과생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변인을 탐색하고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의 확산 속도에 비해 이에 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일방향적 영향력을 검증 하는데 치우쳐있어, 예측변인들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부족하

다(김병년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개인·환경적 변인의 인과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나아가 변인들 간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발달시기상 중요한 시점에 놓인 청소년, 그 중에서도 사용량과 중독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형성 및 지속된다는 Bowlby(1982)의 관점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생애초기부터 개인의 일생동안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을 지닌 청소년들은 내적인 결핍을 느끼게 되며, 하나의 충족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애착이 휴대전화 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김민경, 2012; 박주신 외, 2007; 박희경, 2011; 송진숙, 2008; 윤소정, 2013; 이현덕, 2011; 이혜진, 2001; 최은영, 2008)가 있었고,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성윤지, 2013; 오현희, 2013)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부모애착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존재인 또래와의 애착관계 또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다. 이 시기에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의 자기 개념, 심리적 적응, 신체적 건강상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Greenberg 외, 1987),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up, 1983).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또래애착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목점선, 2004; 이윤숙, 2004; 장혜진, 2002; 서지혜, 2012)들이 다수 있었으나 또래와의 애착안정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결과(성윤지,

2013)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황승일, 2013)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또래애착이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방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독이란 결국 그 사용에 있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중독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자기통제력을 다뤄왔다. 다수의 연구(민선애, 2007; 송원영, 1988; 안석, 2000; 양심영 외, 2005; 이계원, 2001; 이연미 외, 2009; 이주현, 2006; 장혜진, 2002; 한주리 외, 2004)에서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김병년 외(2013)의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목점선(2004)은 부모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 및 또래 애착, 개인내적인 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설정하여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

1) 중독의 개념

‘스마트폰 중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독(Addiction)’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독이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라고 정의된다(Goldberg, 1995). 정신의학에서 중독은 주로 알코올, 마약, 담배 등의 물질중독으로 한정되어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중독은 단지 약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위험 증상 및 문제적 행동을 야기하는 모든 대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손은하, 2012). 특정 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조절의 문제를 중독으로 확대하여 행위중독(behavior addiction)으로 구분하게 되었고(Marks, 1990; 박지영 외, 2012), 대표적인 행위중독으로는 병적도박(Pathologic Gambling), 섭식장애(Eating Disorder), 방화광(Pyromania), 도벽광(Kleptomania), 비디오 게임 중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병리적 중독의 대상은 운동, 섹스, 소비, 일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박영호·김미경, 2002; Griffiths, 1995; Marks, 1990). Griffiths(1999)는 약물에 의한 중독이 아닌 행동 중독의 핵심 요소로 특정행동에 대한 집착, 내성, 금단, 기분의 변화, 파생된 갈등현상, 재발(recurrence) 등을 들었다. 행동 중독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되었고, 현대에는 영상매체, 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영역까지도 확장되어 TV, 테크놀로지,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게임 등의 기술중독(Technological addiction)이라는 용어도 생겨나게 되었다(장혜진, 2002). 새

롭게 나타나는 행위중독의 하나로 휴대전화 중독을 들 수 있으며, 휴대전화와 PC의 기능이 결합된 형태인 스마트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행위중독은 수동적 중독과 능동적 중독으로 나뉘어진다. TV, 영화, Video를 보는 것은 수동적 중독에 해당되며, 능동적 중독이란 컴퓨터게임, 휴대전화 등과 같이 상호작용이 필요한 측면에서의 중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혜진, 2002), 스마트폰 중독 역시 능동적 중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smart phone)’이라는 매체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은 채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중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에 있으며(Oulasvirta, 2012),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확산 속도에 비해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 또한 아직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휴대전화를 ‘전화기’로 인식(61.1%)한 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PC’로 인식(49.6%)하고 있었다(조항민, 2011). 이처럼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임과 동시에 PC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존의 휴대전화 중독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휴대전화와 PC의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의 특성에 따라, 주로 인터넷 중독 및 휴대전화 중독에 입각하여 접근해왔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역시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김영은, 2013).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휴대전화 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할 것이다.

인터넷 중독은 Goldberg(1995)에 의해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Goldberg는 물질남용 장애 진단 기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을 고안하였는데, 더 많은 사용을 해야 만족을 느끼는 '내성',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을 가지게 되며 사용을 중단하면 불안·초조해지는 증상인 '금단',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문제를 겪는 '일상생활장애'로 설명하였다. Young(1996)은 DSM-IV에 준거하여 알코올, 약물 등의 물질중독이나 병리적 도박 등의 충동조절장애들과 같이 행동장애로서 인터넷 중독을 규정하였다. Griffiths(1999)는 중독행동의 핵심요소로서 특정 행동에 대한 집착, 내성, 금단, 기분의 변화, 파생된 갈등현상, 재발 등을 들었다(한주리·허경호, 2004 재인용). 서승연과 이영호는 Goldberg와 Young에 따라 인터넷 중독은 기존의 알코올, 약물,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이 의존,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이 반복되고, 만성화되어 신체적·심리적·가정적·사회적·직업적·학업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정의하였다(윤영숙, 2013 재인용).

장혜진(2002)은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 진단인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의 네 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해경(2008) 역시 장혜진(2002)의 정의를 따라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휴대전화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신체·심리·사회적인 면에서 부적응 혹은 이탈을 경험하면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며, 휴대전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의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 혹은 행동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한주리·허경호(2004)는 Rauterberg(1996)가 제시했던 중독의 보편적 특성을 적용시켜 휴대전화 중독이란 휴대전화 사용에 몰입하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부정

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현상으로 정의 하였다. 즉, 지속적 몰입, 강박증상, 생활장애, 통제상실이 휴대전화 중독의 특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승수·오경수(2006)는 휴대전화 중독을 강박적·집착적·생활장애적 성향으로 분석하였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휴대전화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전화가 오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고, 물리적인 환경의 방해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감이 생기며,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박탈감이 나타난다. 또한 휴대전화 중독은 생활 공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중독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대인관계 구성이나 유지의 편리함,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집착적인 성향을 보인다(손은하, 2012 재인용).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는 인터넷·휴대전화 중독의 정의에 기초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하거나(박용민, 2011),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안, 초조함과 같은 일상생활 장애라고 하였다(강희양 외, 2012). 김보연(2012)은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 의존하여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며 그로인한 불안, 금단, 의존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장애나 불편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의존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생기면 불안을 경험하며, 결국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는 등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애착

1) 애착의 개념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Ainsworth(1978)등은 애착과 애착행동(attachment behavior)의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애착은 유아와 어머니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며, 애착행동은 유아가 형성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하는 행동이라고 구분하였다(정다운, 2009). 이러한 애착행동에는 울기, 미소짓기, 쫓아다니기, 기어오르기, 매달리기 등이 포함되며, 애착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의 위협을 느낄 때 활성화되고, 근접성이 달성되면 애착행동은 종료 또는 약화된다(옥정, 1998). 애착체계(attachment system)는 유아가 부모에 대한 접근(proximity)을 조절하여, 부모의 접촉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감과 부모와의 거리(distance)감을 통해 발달되는 독립심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애착 전략(attachment strategies)은 안정감이 위협받았을 때 애착 인물에게 다시 근접하려는 것을 뜻하며, 이 때 안정감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면 애착 체계로 돌입하게 된다(이시은, 2003). 애착행동체계는 행동의 방향 및 경험의 지각된 평가에 대한 규칙과 규칙체계를 표상하므로 애착과 애착행동의 기반이 된다(Holmes, 1992; 옥정, 1998, 재인용).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형성 및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Bowlby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이란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갖는 내적 표상으로 유아기에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성장과정을 거치며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Ainsworth, 1999; Bowlby; 1982). Ainsworth 등 (1972)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환경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애착체계를 적절하게 활성화할 수 있고 위협이 해결되면 재빠르게 탐색행동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반면, 불안정하게 애착된 회피적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양육자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피로움의 표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형성하며, 불안-양가적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보살핌과 관심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조현영, 2010).

Holmes(1992)는 애착대상에게 편안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 안정애착이라고 하며 애착 대상에 대해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옥정, 1998, 재인용). Main(1990)은 ‘분류될 수 없는’ 불안정 애착 영아들이 어떤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혼란(inseure-disorganized)’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영아들의 행동은 매우 가변적이고 모순이 있으며, 회피형과 양가형의 특성을 함께 나타낸다(박성하, 2005). Feeney와 Noller(1990)는 애착 유형을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으로 나누었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고독감, 흡연, 알코올 중독 등 심리·신체적 문제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장혜진, 2002).

2) 청소년기의 부모애착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기 전의 과도기로서 그 발달적 특성상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고, 정체감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청소년기의 애착은 아동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초기 애착은 ‘양육자와의 거리(distance)’면에서 목표가 설정되지만,

발달할수록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안전감(security)'이 더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한다(나유미, 1996). Bowlby(1973)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애착 행동은 그 강도와 빈도가 줄어들고, 전화나 편지 등 상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애착 대상과의 안정감을 유지한다고 하였다(2002, 장혜진). Bowlby(1988)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들어서도 부모는 여전히 '안정기저(secure base)'로 남아있으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애착체계가 활성화된다. 성장해감에 따라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은 줄어들더라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중요하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화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Weiss, 1982). Raja(1992)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높은 애착 안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하였으며, Panini와 Roggman(199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부모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기가치감이 높아지고 정서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의 질은 생의 초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변화 발전하며,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은영, 2008).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부모애착이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존중,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근접 가능성에 대한 자녀의 신뢰감을 포함하는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3)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어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또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에게 관심이 향하게 되며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하는 욕구가 많아지고(성운

지, 2013), 또래집단 안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부모와는 다른 형태의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이시형, 2000; 한미영, 2006). 즉 청소년들은 부모와 또래로부터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Raja, Shyamala Nada, 1992).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애착만큼이나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또래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애착이란 또래에 대하여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교감할 수 있는 긍정적 또래 관계를 의미한다(이수하, 2005; Perry & Bussey, 1984). 또래는 첫째,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며 서로에게 지지, 격려,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준다. 둘째, 또래집단은 사회적 비교의 기능을 갖는다. 또래를 자기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적 비교 기능은 8세에서 10세 경에 발달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윤미, 1998). 셋째,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의 기능을 갖는다. 놀이, 운동, 학습 등 여러 장면에서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넷째,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가 된다(목점선, 2004). 가족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돌봄으로서 관계가 유지되지만 또래와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며(김영미, 2000), 수직적이기보다 수평적인 구조로서 또래간의 사회적 교환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Hartup, 1992),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구분된다.

청소년기에 원만한 또래애착의 형성은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게 하고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게 한다(이완정·이은영, 1988). 많은 연구들이 또래와의 견고한 관계는 높은 수준의 입장 전달 능력과 이타적 행동(Azmitia & Perlmutter, 1989; Eisenberg & Febes, 1997),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Cauce et al. 1994; Garneski & Diekstra, 1996; Coi & Dodge, 1997)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노향희, 2008).

Greenberg등(1987)은 이 시기에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의 자기 개념, 심리적 적응, 신체적 건강상과 강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up, 198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란 또래와의 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의 정의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Goldfried와 Merbaum(1973)은 자기통제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변화시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Patterson과 Mischel(1976)은 반복적인 작업에서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Kopp(1982)는 자기통제력을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haffer(1993)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도달을 위해 순간의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Logue(1995)는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작은 강화보다 지연되지만 더 큰 강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충동성(impulsiveness), 즉 지연된 큰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자기통제와 관련된 선택상황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지연시

간이 다르지만 결과로 인한 보상의 크기는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연 시간이 짧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지연 시간이 같고 그 결과로 인한 보상의 크기가 다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보상이 보다 큰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 번째는 자기통제적인 선택이 관여하는, 즉 지연시간과 보상의 크기가 둘 다 다를 경우이다. 지연 시간이 짧은 경우 작은 보상을 얻게 되고 오랜 지연시간 후에는 커다란 보상이 있을 때, 커다란 보상을 기다리지 못하고 작은 보상을 받고 마는 것이 충동성이라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통제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Logue, 1995).

Flavell(1985)은 발달기의 청소년은 점차 다음과 같은 능력을 발달시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첫째, 어떤 행동을 의도, 계획, 결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능력, 둘째, 하고 싶지만 금지된 행동 또는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다. 셋째, 행동을 기다리고 보류하며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다.

James(1963)와 자아이론가들은 자기통제(self-control)를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의 평가가 내재된 것으로, 정신 분석학자들(Freud, 1959; Rapaport, 1951; Singer, 1995)도 부모에 의해 내재화된 성격특성으로 인정하였다. 두 관점은 공통적으로 자기통제를 개인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심리내적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사회 인지학습의 이론적 접근에서는 자기통제를 단순히 심리내적인 특성으로 보거나, 외부변인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관점과는 달리 자기통제의 과정을 중시하여 개인의 내적인 인지과정과 외부조건, 상황적 배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Harter, 1983). 즉,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외적변인(External variables)이므로 자기통제의 능력은 개인의 행동과 환경의 상호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Bandura(1986)의 상호 결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인 P(Personality: 개인 내적 요인), B(Behavior: 행동), E(Environment : 환경적 외적요인)가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인지가 상호작용하여 행동을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Goldfried & Merbaum(1972)은 자기통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그것을 자신이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서 자신이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Thoresen & Mahoney(1974)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내·외적 환경을 잘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데 있어 그 주체가 자아가 된다는 점에서 자유와 권위가 무시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유태열, 1991). Aronfreed(1976)에 의하면 인간의 통제행동은 본래 외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점차적으로 내적통제나 자기통제화 되는 것으로, 성장초기에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주로 신체적 제재와 외적통제에 의존한다. 즉, 이 시기에 아동은 부모의 안내와 제재에 의해 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신체적 제재는 사회적 제재로 외적통제는 내적통제로 대체되는데, 자기통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주요대상 즉, 부모와의 사랑이 중요하다.

Logue(1995)는 자기통제력의 실패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섭식행동 약물중독, 성행동, 운동, 공부, 부정행위, 금전사용에서의 절약, 도박, 절도 등을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송원영, 1998). 박성수(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인지능력이나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공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

며, 그러한 부적응상황을 벗어나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기 쉬워진다(남현미, 1999, 재인용).

4.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1)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Flores(2004)는 중독을 일종의 애착장애로서 보았다. 그는 애착의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은 합당한 발달적 요구의 박탈로 인하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보상적 행동에 취약해진다고 하였으며, 애착의 부재로부터 오는 결핍을 보상하려는 행위로서 대체물에 대한 강박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안정적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내적인 공허감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채워줄만한 대상을 찾아 중독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불안정한 애착으로부터 오는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보상적 행동의 대상이 되기 쉬울 것이다.

애착은 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변인 중 하나이며, 이 중 부모애착은 생애 초기부터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부모는 ‘안정 기저’로 유지되며(Bowlby, 1958),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가치감에 대한 지각과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한 평가, 정서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친다(Armsden & Greenberg, 1987). Collins와 Read(1990)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일수록 중독정도가 낮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

현덕(2011)은 애착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박희경(2011)은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으며, 윤소정(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 중 이혜진(2001)의 연구에서 안정적 애착관계가 형성된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 중독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신 등(2007)도 휴대전화 과다사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징들이 불안정 애착을 지닌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징들과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연구결과 부모와의 친밀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2008)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밀감이 적을수록 휴대전화의 몰입적 사용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가 크고, 휴대전화의 강박, 쾌락적 사용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송진숙(2008)은 휴대전화 과다사용집단이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소외감이 높은 불안정 애착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최영아(2011)는 부모의 애착이 불안정한 만큼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뢰할만한 애착대상을 구하고자 하므로 청소년 휴대전화 과다사용의 원인으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결여를 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민경(2012) 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는데,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따라 건강한 성장을 하거나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나, 성윤지(2013)와 오현희(2013)의 연구에서 부모애착 가운데 모의 애착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긍정적 또래 관계를 의미하는 또래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애착만큼 중요하다(Ainsworth, 1989). 또래관계에 있어서 친밀

감과 지지, 신뢰와 같은 질적인 측면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최승은, 2006), 반대로 또래와의 신뢰감 형성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소년은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또래애착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중 이윤숙 외(2004)의 연구에서 또래지지가 낮고, 갈등이 있으며, 친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또래에게 관심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관심으로 대리만족하게 되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윤희(2005)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증 중독군 청소년들이 인터넷 일반 사용군 청소년들보다 친구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혜인(2012)의 연구에서는 친구가 없고 또래 관계의 질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진(2002)은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기제로 인하여 애착불안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과다 사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집단은 또래 관계에서 높은 의존성향을 보이고, 애착불안도 높다고 하였다. 이혜선(2007)은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애착 의존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 불안정한 또래애착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래애착과 서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애착은 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변인 중 하나이며, 그 중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및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게 해주는 주요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영옥 외(2005)의 연구에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인터넷 중

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두연(2005)의 연구에서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다고 하였다. 또래 애착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 대한 연구에서도 또래애착 수준이 안정적일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 경향이 심화된다는 결과가 있었으며(성윤지, 2013), 또래의 지지가 스마트폰 사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허지혜, 2013). 이와 같이 또래애착과 중독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애착과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 이론은 부족하거나 비효과적인 양육, 즉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애착이 결여된 경우 자녀가 낮은 자기통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Higgings 외, 2009). 이들은 자기통제가 초기 아동기부터 발달하여 8세에서 10세 사이에 안정되며 부모의 양육과정을 통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성공적인 훈육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지원의 애착관계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또한 부모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며 환경적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Silverman & Ragusa, 1990).

홍영수 외(2010)의 연구에서 애착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자기통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몇몇 연구에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청소년의 사회적응이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

고 제안하였다. Hirshci(1969)는 부모-자녀 애착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여 부모와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 아동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의 부모에게 좀 더 강한 심리 유대적 태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사랑과 존경, 애정 등 부모에 대한 심리적 유대로 인해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Gentzler(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 행동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행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와의 애착이 결여된 자녀는 부모의 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기제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숙, 2003). Gottfredson(1990)은 불안정 애착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민수홍(1996)은 관심과 보호, 애정이 부족하여 자녀의 행동에 정확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애착과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 목점선(2004)의 연구에서 부모애착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터넷 중독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완화시키는데 자기통제력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자기통제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달과정에서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대상과의 안정적인 애착이 중요한 요인이 되며, 청소년들이 발달해 감에 따라 부모의 품을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래 집단은 청소년의 행동기준과 모범이 되어 인간의 발달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이춘재, 1988), 부모애착과 더불어 또래와의 애착 역시 자기통제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목점선, 2004)가 있는 반면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구체적으로 목점선(2004)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기통제력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남현미(1999)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에 비하여 친구지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Maxwell(2000)은 또래의 가치관과 행동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송윤경(2010)의 연구에서도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선행연구마다 그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중독은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Loss of control)을 의미한다(최혜진 외, 2011). 이전의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약물 사용 이외의 중독적 행동에 대한 기저에는 다른 중독 장애와 공통적으로 통제력의 결핍을 보고하였고(Knecht, 1995), 이후 정상적인 적응이나 자기 조절과정에서의 실패에 의한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김교헌,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통제력은 중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휴대전화 중독,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제시되어 왔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적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송원영(1998)은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현실생활에서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하여 얻는 강화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중독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계원(2001)은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점수가 낮아지는 연구 결과에 대해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안석(2000)은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자기통제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심영·박영선(2005)은 인터넷 중독의 논의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중독을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휴대전화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제력을 잃어 사용자의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연미 외(2009)는 자기통제의 실패는 휴대전화의 즉시성 및 편리성과 결합되어 휴대전화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중독적 사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1)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휴대성은 타인의 감시를 피할 수 있고, 행위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게 하므로 휴대전화를 즉흥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매체의 속성 때문에 만족지연을 하지 못하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더욱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역시 기존의 휴대전화 이상으로 즉시성 및 편리성을 가진 매체로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주리와 허경호(2004)는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중독과는 부적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자기통제력이 다른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듯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장혜진(2002)은 다른 중독성의 특징과 유사하게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정상 집단에 비해 스스로 과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집단에서 자기통제감이 낮게 나타났다. 민선애(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고, 김병년 외(2013)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자기통제력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부모·또래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또래애착과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가설 1-1.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1-2.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1-3.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1-4. 또래애착과 자기통제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1-5.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가설 2-1. 부모애착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또래애착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부모애착은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5.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6.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7.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부모 및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연구 방법에 대해 연구 대상, 연구 설계, 측정 도구, 자료 분석의 순으로 밝히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한 학교의 중학교 2학년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 42부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17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1부를 제외한 총 33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구성은 12세부터 15세($M=13.25$, $SD=0.474$)로, 성별은 남자가 186명(56%), 여자가 146명(44%)이었다.

2.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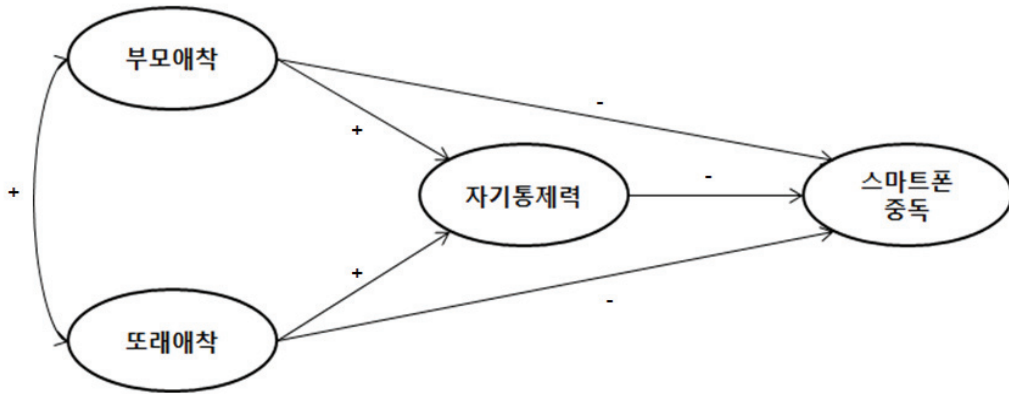
1) 연구 변인

본 연구에서는 부모·또래애착,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변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예측변인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으로 설정하였고, 매개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준거변인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2)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부모·또래애착,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자기통제력이 부모 및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또래 애착이 자기통제력을 거쳐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림 1>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모형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필요한 측정 도구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 부모·또래애착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이며, 각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중독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라는 제목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여전히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박용민(2011)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윤영숙(201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로 ‘병적몰입’ 6문항(예: 스마트폰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란 없다), ‘생활장애’ 5문항(예: 밤새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통제상실’ 5문항(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강박증상’ 4문항(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소리나 진동을 느낀 적이 있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의 5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범위는 1점부터 100점 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를 한 윤영숙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Cronbach's α
스마트폰 중독	병적몰입	2, 4, 5, 6, 8, 19	.93
	생활장애	9, 10, 15, 17, 20	
	통제상실	1, 3, 11, 12, 13	
	강박증상	7, 14, 16, 18	

*표시는 역채점 문항

2) 부모·또래애착 척도(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부모·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를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으로 측정할 것이다. IPPA-R은 IPPA와는 달리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분리하여 같은 내용으로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는 총 25문항이며, 신뢰감에 관한 10문항(예: 어머니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의사소통에 관한 9문항(예: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다), 소외감에 관한 6문항(예: 어머니는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에 대한 애착 역시 총 25문항이며, 신뢰감에 관한 10문항(예: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내 친구들은 바로 알아차린다), 의사소통에 관한 8문항(예: 어떤 일에 대해 논할 때,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생각해준다), 소외감에 관한 7문항(예: 내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애착이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부애착 .93, 모애착 .92, 그리고 또래애착 .9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93 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구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부모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모애착	신뢰감	2, 3*, 4, 5, 9*, 13, 17*, 20, 22, 24	.93
	의사소통	1, 6*, 7, 12, 15, 16, 19, 21, 25	
	소외감	8*, 10*, 11*, 14*, 18*, 23	

*표시는 역채점 문항

<표 3>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Cronbach's α
또래애착	신뢰감	2, 5*, 7, 12, 14, 15, 17, 18*, 19, 24	.93
	의사소통	1, 3, 6, 8, 11*, 13, 22*, 23*	
	소외감	4*, 9*, 10*, 16, 20, 21, 25	

*표시는 역채점 문항

3) 자기 통제력 척도

자기 통제력 척도는 주로 교사나 부모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기 통제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한 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 통제에 대하여 측정되고, 일반적인 자기통제를 측정한 연구가 없다. 이에 교사나 부모 보고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가장 일반적인 자기 통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자기 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Kendall & Wilcox)를 송원영(1998)이 자기보고형으로 수정,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할 것이다. 총 21문항(예: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Likert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송원영(1998)의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는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PASW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 및 빈도분석과 변인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그리고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plus 6.12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모형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및 변인 간의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여러 장점을 갖는다. 첫째, 구조방정식에서는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이론변수로 사용하므로 측정오차가 통제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이론변수간의 공변량 계수나 회귀계수 값은 측정 변수를 바탕으로 구한 계수 값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다. 매개변수는 특성상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는 하나의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매개변수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회귀분석 대신 경로분석을 사용하면 매개변수를 쉽게 다룰 수 있지만 경로분석에서는 이론변수가 아닌 측정변수가 사용되므로 측정오차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 정확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셋째,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 모형이 실제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의 분석과정 중, 이론 모형의 평가 단계는 모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 중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MacCallum, Brown, & Sugawara, 1996; 홍세희,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을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고,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miximation)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값은 0과 1.0사이이며, 이론 모형에 대한 CFI와 TLI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대략 0.9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RMSEA의 경우 그 값의 하한선이 0이지만 상한선은 제한되지 않으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대략적인 기준으로, RMSEA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Brown & Cudeck, 1993).

적합성이 검증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각 변인간의 경로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Shrout & Bolger (2002)가 제안한 Bootstrap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때, 간접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z검증을 실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반면,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면 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뤄야 한다는 가정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서영석, 2010).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연령은 만 12-15세 ($M=13.25$, $SD=0.474$)로 모두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186명 (56%), 여자가 146명(44%)이었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332)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86	56.0
	여	146	44.0
학년	2학년	332	100.0

2)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연구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는 스마트폰 사용기간 및 하루 기준 사용시간, 사용동기,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 미만'이 143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미만'은 65명(19.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5명(16.6%), '3년 이상'은 9명(2.7%)으로 나타났다.

하루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이 92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미만'은 68명(20.5%),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66명(19.9%), '3시간에서 4시간 미만'은 50명(15.1%), '4시간에서 6시간 미만'은 33명(9.9%), '6시간 이상'은 16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주변사람들과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22명(66.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뉴스 등 각종 정보를 바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48명(14.5%), '최근 유행이어서'는 46명(13.9%)이었으며, '업무 및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는 8명(2.4%)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카카오톡 등 SNS'가 166명(50.0%)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게임 등 취미 기능'은 47명(14.2%), '인터넷 정보검색'은 44명(13.3%), '음악/영화 감상 및 DMB 시청'은 40명(12.0%), '문자메시지'는 13명(3.9%), '음성통화'는 11명(3.3%)으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N=332)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5	19.6
	6개월 - 1년	55	16.6
	1 - 2년	143	43.1
	2 - 3년	56	16.9
	3년 이상	9	2.7
사용시간	1시간 미만	58	20.5
	1 - 2시간	92	27.7
	2 - 3시간	66	19.9
	3 - 4시간	50	15.1
	4 - 6시간	33	9.9
	6시간 이상	16	4.8
사용동기	최근 유행이어서	46	13.9
	뉴스 등 각종 정보들을 바로 검색하기 위해	48	14.5
	업무 및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8	2.4
	주변사람과의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222	66.9
	기타	2	0.6
사용기능	음성통화	11	3.3
	문자메시지	13	3.9
	인터넷 정보검색	44	13.3
	음악/영화감상 및 DMB 시청	40	12.0
	게임 등 취미 기능	47	14.2
	카카오톡 등 SNS	166	50.0

3)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는 <표 6>과 같이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스마트폰 사용이 총점(20-100) 상위 25%인 집단을 '상위집단'으로, 하위 25%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상위집단 88명(남 35, 여 53), 하위 집단 88명(남 65, 여 23)으로 분류되었다.

<표 6> 응답자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

특성	N	범위	측정점수
하위집단(중독점수 낮은 집단)	88	하위 25%	20-29
중간집단	156	중간 50%	30-51
상위집단(중독점수 높은 집단)	88	상위 25%	52-90
전체	332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값과 최소값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왜도	첨도
모	332	94.66	17.093	125	43	-0.421	-0.264
예약							
부	332	74.95	13.937	100	29	-0.471	0.013
또래	332	92.79	14.493	125	50	-0.019	-0.428
자기통제력	332	71.24	10.875	105	40	0.612	0.563
스마트폰중독	332	42.13	15.068	90	20	0.412	-0.559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는 2, 첨도는 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모두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 조건을 충족시켰으며(West & Finch, 1995),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인 중독, 애착, 자기통제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N=332)

	1	2	3	4	5
1. 모애착	-				
2. 부애착	.854***	-			
3. 또래애착	.429***	.460***	-		
4. 자기통제	.472***	.481***	.508***	-	
5. 스마트폰 중독	-.272***	-.264***	-.131*	-.364***	-

cf. * $p < .05$, *** $p < .001$

분석 결과, 변인들 간의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애착($r = -.272$, $p < .001$)과 부애착($r = -.264$, $p < .001$), 또래애착($r = -.131$, $p < .05$) 모두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대로 자기통제력과 모애착($r = .472$, $p < .001$)과 부애착($r = .481$, $p < .001$), 또래애착($r = .508$, $p < .0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364$, $p < .001$). 이로써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한 가설 1-1과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한 가설 1-2 및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한 가설 1-3과 ‘또래애착과 자기통제력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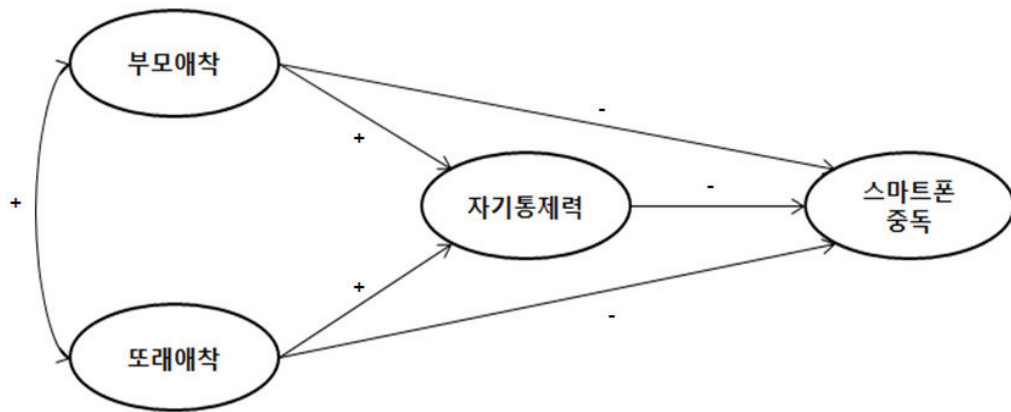
한 가설 1-4,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한 가설 1-5가 지지되었다.

2. 연구모형 검증

1) 구조모형의 검증

부모·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증가하고, 이렇게 높아진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본 가설을 바탕으로 한 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조모형검증에 있어서 모애착과 부애착의 경우, 앞의 상관분석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854, p<.001$), 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간 상관의 크기($r=-.272, p<.001$)와 부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간 상관의 크기($r=-.264, p<.001$)가 .08의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고, 휴대전화 중독 집단에서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송진숙, 2008)와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휴대전화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최영아, 2011)를 근거로 모애착과 부애착을 따로 구분하기보다, 하나의 잠재변인(부모애착)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모형

또한, 잠재변인을 구분하는 측정변수들을 설정하는데 있어 척도의 하위요인 개수대로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다. 문항꾸러미를 사용하면 개별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줄일 수 있고, 추정모수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Bandalos, 2002;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서영석, 2010 재인용). SEM에서 사용하는 최대 우도법 절차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룰 것을 가정하는데,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bandalos, 2002), 개별문항을 사용해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너무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즉, 문항의 수가 많아질수록 추정할 모수가 많아지고 결국 표본이 매우 커야 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Edward, 1998; 서영석, 2010 재인용). 마지막으로, 모든 문항이 아니라 문항의 합 또는 평균값으로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단일 관측치로 잠재변인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서영석, 2010)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사용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문항꾸러미를 통해 만들어진 측정변수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및 첨도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 각각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아 모든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 Finch, 1995).

<표 9> 측정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332)

측정변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부모_1	-											
02부모_2	.854***	-										
03포레_1	.383***	.413***	-									
04포레_2	.436***	.461***	.842***	-								
05포레_3	.406***	.439***	.839***	.787***	-							
06통제_1	.422***	.447***	.393***	.417***	.427***	-						
07통제_2	.470***	.452***	.436***	.472***	.475***	.696***	-					
08통제_3	.348***	.366***	.395***	.406***	.388***	.653***	.623***	-				
09중독_1	-.342***	-.328***	-.153**	-.210***	-.230***	-.307***	-.343***	-.302***	-			
10중독_2	-.182***	-.198***	-.059	-.155**	-.129*	-.290***	-.256***	-.309***	.675***	-		
11중독_3	-.177**	-.152**	.000	-.075	-.063	-.258***	-.211***	-.275***	.722***	.825***	-	
12중독_4	-.254***	-.256***	-.058	-.142**	-.124*	-.294***	-.280***	-.254***	.600***	.647***	.679***	-
평균	3.79	3.75	3.72	3.79	3.61	3.36	3.55	3.28	2.05	2.03	2.36	1.98
표준편차	0.684	0.697	0.680	0.571	0.574	0.595	0.585	0.591	0.774	0.821	0.960	0.898
왜도	-0.421	-0.471	-0.008	-0.159	0.056	0.565	0.364	0.319	0.640	0.489	0.214	0.842
첨도	-0.264	0.013	-0.520	-0.143	-0.292	0.537	0.107	0.346	-0.098	-0.476	-0.893	-0.044

df. * $p < .05$, ** $p < .01$, *** $p < .001$;

01부모_1: 모애착, 02부모_2: 부애착, 03포레_1: 포래애착 신뢰감, 04포레_2: 포래애착 의사소통, 05포레_3: 포래애착 소외감, 06통제_1: 자기통제력(1-7), 07통제_2: 자기통제력(8-14), 08통제_3: 자기통제력(15-21), 09중독_1: 스마트폰중독 병적몰입, 10중독_2: 스마트폰중독 생활장애, 11중독_3: 스마트폰중독 통제상실, 12중독_4: 스마트폰중독 강박증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χ^2 과 CFI, TLI, RMSEA를 참조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합도 지수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모형을 선호하지 않아야 하고, 모형 오류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값을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CFI, TLI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이 넘으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반면 RMSEA는 그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이고 .05 이상 .08 이하면 보통,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chi^2(48, N=332)=105.273, p<.001; CFI=.980; TLI=.973; RMSEA=.060, 90\%$ confidence interval[CI]: .044, .076)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90% CI]
연구 모형	105.273***	48	.980	.973	.060 [.044, .076]

df. *** $p<.001$

따라서, 적합성이 검증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각 변인간의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 및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우선, 애착수준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착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통제력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기통제력은 .299만큼 증가하였으며($\beta=.372, S.E.=.058, p<.001$), 이와 유사하게 또래애착 역시 그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기통제력은 .298만큼 증가하였다($\beta=.382, S.E.=.057, p<.001$). 다음으로,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중독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기통제력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516만큼 감소하였다($\beta=-.425, S.E.=.105, p<.001$). 마지막으로, 애착수준이 자기통제력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나($B=-.107, \beta=-.110, S.E.=.075, ns$), 이와 달리 또래애착은 그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스마트폰 중독 역시 .179만큼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beta=.189, S.E.=.071, p<.05$).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이 자기통제력을 거쳐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을 거쳐 직·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연구 모형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t*값 (N=332)

경로	B	β	S.E.	<i>t</i>
부모애착 → 자기통제력	.299	.372	.058	5.204***
또래애착 → 자기통제력	.298	.382	.057	5.193***
부모애착 → 스마트폰중독	-.107	-.110	.075	-1.432
또래애착 → 스마트폰중독	.179	.189	.071	2.520*
자기통제력 → 스마트폰중독	-.516	-.425	.105	-4.895***

cf. * $p<.05$, *** $p<.001$

2) 매개효과의 검증

애착수준이 자기통제력을 거쳐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이 방법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 방법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95%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Bootstrap 표본 10,000개를 생성하여 직·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직·간접효과 검증 결과

(N=332)

	경로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직접	부모애착 → 스마트폰중독	-.110	-.257	.038
간접	부모애착 → 자기통제력 → 스마트폰중독	-.158***	-.235	-.081
직접	또래애착 → 스마트폰중독	.189*	.044	.334
간접	또래애착 → 자기통제력 → 스마트폰중독	-.162***	-.252	-.072

cf. * $p < .05$, *** $p < .001$; 표준화계수, Bootstrap Samples = 10,000

우선,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beta = -.158$, 95% confidence interval[CI]: $-.235, -.081$),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beta=-.110$, 95% confidence interval[CI]: $-.257, .038$). 즉 이는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이 완전매개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효과($\beta=-.162$, 95% confidence interval[CI]: $-.252, -.072$)와 직접효과($\beta=.189$, 95% confidence interval[CI]: $.044, .334$)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 2-6과 ‘또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 2-7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또래애착의 경우 간접효과($\beta=-.162$)는 부적인 반면, 직접효과($\beta=.189$)는 정적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V.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의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개인내적인 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제안하였고, 부모·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또래애착과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들 간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애착과 부애착, 또래애착 모두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부모·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모애착과 중독과의 관계(김민경, 2012; 박주신 외, 2007; 박희경, 2011; 성윤지, 2013; 송진숙, 2008; 오현희, 2013; 윤소정, 2013; 이현덕, 2011; 이혜진, 2001; 최은영, 2008) 그리고 또래애착과 중독과의 관계(목점선, 2004; 이윤숙, 2004; 장혜진, 2002; 서지혜, 2012)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중요한 대상과의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애착의 부재로부터 오는 결핍을 보상하려는 행위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나타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제안과 일치하는 방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반대로 자기통제력과는 모애

착과 부애착, 또래애착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 애착과 자기통제와의 관계(목점선, 2004; 송윤경, 2010; 홍영수, 2010) 그리고 또래애착과 자기통제와의 관계(목점선, 2004; 송윤경, 2010)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환경적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며(Silverman & Ragusa, 1990),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애착이 결여된 경우 낮은 자기통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본 연구의 제안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인 또래는 청소년의 행동기준과 모범이 되어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여(이춘재, 1988) 자기통제 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라 제안과도 일치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통제와 중독과의 관계(김병년 외, 2013; 민선애, 2007; 송원영, 1988; 안석, 2000; 양심영 외, 2005; 이계원, 2001; 이연미 외, 2009; 이주현, 2006; 장혜진, 2002; 한주리 외, 2004)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약물중독 이외의 모든 중독적 행동의 기저에는 통제력의 결핍이 존재함을 보고하였으며(Knecht, 1995), 자기통제력이 중독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계성에 근거하여, ‘부모·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갖는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통제력 수준의 변화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관심과 이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기제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반대로 부모와의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높은 자기통제 수준을 갖게 되고, 자기통제력의 완충효과를 통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통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주요 대상인 부모와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관심, 보호, 애정의 부족으로 자녀의 행동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민수홍, 1996), 즉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기제를 갖기 어려워지며(김경숙, 2003), 이렇게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하여 자기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을 거쳐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경우 간접효과는 부적인 반면,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높은 또래애착 수준이 자기통제력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

히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높은 또래애착 수준은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또래애착 수준이 높아도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 경우엔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래애착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결과의 방향성이 불일치해 왔는데, 안정적 또래애착이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목점선, 2004; 이윤숙, 2004; 장혜진, 2002; 서지혜, 2012)가 있었던 반면 또래와의 애착 안정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성윤지, 2013)나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황승일, 2013)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또래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심리적 지원을 받게 되어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제안에 따라 또래애착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예측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달리 스마트폰은 매체의 특성상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와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래와의 높은 애착 수준은 오히려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성윤지(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 사용 이유로 ‘주변사람들과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22명(66.9%),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카카오톡 등 SNS’가 166명(50.0%)으로 다수를 차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또래와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인스턴트 메신저 및 SNS를 통해 교류하는 또래간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이것이 스마트폰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친구가 많고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많이 소통할수록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은 이러한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완충역할을 하여 높은 자기통제력 수준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또래에 의한 영향보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욕구를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통제권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예측한 것처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의 안정적 애착형성과 유지가 중요하며, 치료적 개입에 있어 부모애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려 노력하며, 개방적인 소통방식으로 자녀와의 신뢰를 이끌어내어 자녀 스스로 부모가 자신을 수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올바른 애착형성을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및 상담이 예방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청소년만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연계된 치료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 간 애착은 생애 초기에 많은 것이 결정되며 전 생애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애착을 다루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하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적 애착 형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편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며, 또래와의 지나친 결속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심리적 자원이 되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상의 관계보다도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상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관계유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속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닌 또래와의 대체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기통제력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폰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자기통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통제 훈련 과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자기통제 훈련을 위해서는 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점에 있으며,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독 예방 및 치료적 방향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개인 내적인 변인과 부모 및 또래의 환경적 변인이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애착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밝혀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이며, 성인에 비하여 빠른 개입을 통한 예방이 가능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해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고, 대상자가 타인에게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통제할 수 없어 객관적인 측정값을 반영하는데 제약이 있다. 특히 연구 설문 동의서에 반 번호와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였고, 설문과정은 담임선생님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는 경향으로 인해 실제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제한점을 보완한 방법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측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양적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좀 더 풍부한 기술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심층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 시점에 얻은 자료이므로 스마트폰 중독과 애착 및 자기통제력 변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아 스마트폰 중독의 이론적 정의 및 척도 사용에 있어 휴대전화와 인터넷 중독의 연구를 참조한 점으로 본 연구에서 변인의 특성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휴대폰 및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여전히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가 없는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측정을 위해 ‘한국형 이동전화 중독 척도’에 스마트폰 관련문항을 박용민

(2011)이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나 그 외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반복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에 소재한 한 학교의 2학년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과 학교특성 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중학생 및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단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집단은 중학생이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점점 더 저연령화 되고 있기에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변인의 관계에 대하여 총체적 차원에서 연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중독집단이 아닌 일반 대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으로 연구결과를 적용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독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을 세부적으로 범주화하여 중독집단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 따라 더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변인 간 관계 설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분리하여 검증하지 않고 부모애착으로 보았으나 부모 각각의 애착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외에 이용 동기나 그 외에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양·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금창민 (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proneness)'과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 (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11(1), 63-105(43).
- 김민경 (2012).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부모애착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19(4), 1-22.
- 김병년·고은정·최홍일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67-98.
- 김보연 (2012).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0).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훈 (2013). 모바일 SNS시대의 인터넷 윤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2), 1-8.
- 김윤희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 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유미 (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영옥·이상준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195-222.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목점선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애착·학교생활 적응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선애 (2007).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수홍 (1996).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27, 91-124.
-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영호·김미경 (2002).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제, 13(1), 335-359.
- 박용민 (2013).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신·강문희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과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7(1), 1-15.
- 박지영·김귀애·홍창의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151-169.
- 박희경 (2011).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지혜 (2012). 고등학생의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 동기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윤지 (2013). 청소년의 소외감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하 (2012). 스마트폰 중독과 예방에 대한 인식연구: 스마트폰 이용자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경 (2010).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이 위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숙 (2008).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차이.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심영·박영선 (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향의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4), 1-16.
- 오현희 (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예측 변인의 탐색 : 가족 의사소통과 부모애착을 중심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열 (1991). 자기통제법이 자주적 학습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윤두연 (2005). 청소년의 또래집단 성향이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소정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숙 (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계원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시은 (2003).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시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연미·이선정·신효식 (2009).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24-49.

이완정·이은영 (1998).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25-138.

이주현 (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 (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이현덕 (2011).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관계: 외로움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선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2(1), 133-157.
- 이혜인 (2012).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환경요인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은·박혜경 (2011).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중독 성향과 제 3자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56-256.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자기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운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민 (2011).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 위험특성과 이용자 위험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영 (2010).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사회학적 의미고찰. 서울: 한국정보사회학회.
- 최승은 (2011). 친구 관계 유형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및 친구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아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심리사회 성숙도와 휴대폰 과다사용의

-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미 (1998). 현대청년심리학. 서울 : 학문사.
- 최은영 (2008). 청소년의 애착과 성취욕구가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최연실·안연주 (2011).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113-133.
- 필립 플로레스 (2004).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NUN.
- 한미영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수·오경수 (2006). 대인관계 유형과 사용 경향에 따른 이동전화 중독 성향 연구: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4), 371-405.
- 한주리·허경호 (2004). 휴대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226-247.
- 허지혜 (2013).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승일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Y: Erlbaum.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 Psychologist, 44(4), 709-716.
- Ainsworth, M. D. S. (1999). The functions of multiple representations. *Computers and Education*, 33(2-3), 131-15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ronfreed, J. (1976).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In T. Lickona(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pp.120-125). New York: Hoit, Rinehart and Winston.
- Azmitia, M., & Perlmutter, M (1998). Social Influence on children's cognition; State of art and futer directions. In Reese, H.w. (ed.), *Advance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22, Academic Press, New York.
- Bandalos, D. I., (2002). The effect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Psychoanalysis*, 39, pp.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eration*. N. Y.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Basic Books, New York.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Egger, O., & Rauterberg, M. (1996). *Internet behavior and addiction*, ETH Technical Report AP-01-96,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 Erickson, E. H. (1968). *Identify: Youth and crisis*. NY: W. W. Norton and Company.
- Feen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lavell, J. H. (1985). *Cognitive Development* 2nd Ed., Plactice-hall.
-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Goldfried, Marvin R., & Merbaum, Michael. (1972). *Behavior change through self-control*.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da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iffiths, M. D. (1995).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76, 14-19.

-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5-250.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system.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4, 275-385). N. Y. : John wiley & Sons.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Hartup. W. W. (1992). Peer relation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N.Y.: Plenum press
- Higgins, G. E., M. Mahoney, and M. L. Ricketts (2009). Nonsocial Reinforcement of the Nonmedical Use of Prescription Drug : A Partial Test of Social Learning and Self-control Theories, *Journal of Drug Issues*, 39(4), pp. 949-964.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mes, J. (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 199-214.
- Logue, A. W.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ks, I. (1990). Non-chemical(behavioral) addiction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1389-1394.
- Maxwell, K. (2000). Friends: The role of peer influence across adolescent risk behavior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1(4), 267-277.
- Mischel, C. J., & Patterson, W. (1976). Effects of temptation-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2), 209-217.
- Oulasvirta, A., Rattenbury, T., Ma, L., & Raita, E. (2012). Habits make smartphone use more pervasive.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16(1), 105-114.
- Panini, D. R., & Rogm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8-275.
- Raja, Shyamala Nada.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ume 21, 4, 471-485.
- Scott Bicheno (2013). *Global Smartphone User Penetration Forecast by 88 Countries: 2007 to 2017*. Strategy Analytics.
- Shaffer, D.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California: Brooks/Col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 *Psychological method*, 7, 422-445.
- Thoresen, C. E., & Mahoney, M. J. (1974). *Behavior self-control*. New York: Hort, Rinehart and Winston.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 West, S. G., Finch, J.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non-normal vari-able: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교육부 (2013). 초중고 학교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브리핑 정책뉴스 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무선통신가입자 통계(2014년 3월 말 기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스마트폰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이용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 한국인터넷백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스마트폰 중독 실태 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013 한국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 국민일보(2013년 3월 13일). 한국 스마트폰 이용 비율67%...닐슨조사, 美·호주 이어 3위.
- 영남일보(2014년 2월 3일). 청소년 ‘스마트폰 왕따’ 시달린다. 스마트폰 사용 많아... 유해물 노출 심각.

EBS(2014년 1월 3일). 청소년들의 탈 스마트폰 현상.

ABSTRACT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and Self-Control on Smart Phone Addiction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Yun-M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parents and peers attachments, and mediating variable such as self-control. The smart-phone addiction scale,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and the self-control rating scale were administered to four hundred and two middle-school students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Seoul City. Only three hundred and thirty two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leaving out the incomplete and unusable data.

PASW statistics 21.0 and Mplus 5.21 program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data.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by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s-peers attachments, self-contro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On the other hand, self-control, parents and peers attachm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showed between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Second, although the self-control variable demonstrated significant indirect mediating effec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rect mediating effects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which confirmed that the self-control variabl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Meanwhile, it was found that self-control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research suggestions were discussed, and significances for the study were also suggested.

부 록

부록 1. 설문지 표지 및 참여자 동의서

부록 2. 기초 설문지

부록 3. 스마트폰 중독 척도

부록 4. 부모·또래 애착 척도

부록 5. 자기통제력

부록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 지도하에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학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은 답이나 그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 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한 답변은 연구 자료의 정확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되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응답 요령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주시고, 반드시 한 문항에 한 가지 답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에 작성된 귀하의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이 자료는 학문적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구 윤리 방침을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동의서에 학생 본인과 학생의 법적 보호자(부모님 및 친인척) 모두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 채 규 만(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한국심리건강센터)

연구자 : 이 윤 미(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E-mail : kirakira3233@hanmail.net

“위에 기술된 연구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본인 및 법적 보호자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연구 참여자 본인 (학생): 반 번호

성 명 (이 름)

서 명 (사 인)

날 짜 (년/월/일)

* 연구 참여자 법적 보호자 (부모님 및 친인척)

성 명 (이 름)

서 명 (사 인)

날 짜 (년/월/일)

부록 2.

- ◎ 다음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빈칸을 작성하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 체크 해주세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1. 반, 번 호: _____ 반 _____ 번
2. 나이(연령): 만 _____ 세
3. 성 별: ① 남 자 ② 여 자
4. 학 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부록 3.

- ◎ 다음은 일상적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빈칸을 작성하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 체크 해주세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
택하세요.

1. 지금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은?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
년 이상

2. 하루 총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통화, 문자, 게임, 음악감상, 웹검색, SNS, 인터넷 소셜 등
모두 포함)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4시간 미만 ⑤ 4시간~6시간 미만 ⑥ 6시간 이상

3.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최근 유행이어서 ② 뉴스 등 각종 정보들을 바로 검색하기 위해
③ 업무 및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④ 주변 사람들과의 폭넓은 커뮤니케이션(대화/
소통)을 위해서

4. 다음 중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 ① 음성통화 ② 문자메시지 ③ 인터넷 정보검색 ④ 음악/영화감상
및 DMB 시청
⑤ 게임 등 취미 기능 ⑥ 카카오톡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각 내용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실제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4.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스마트폰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소리나 진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과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주위 사람들이 내가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오래한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그만두면 또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쉬는 시간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4.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중요한 전화나 메시지가 올까하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밤새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스마트폰에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주위 사람들의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일을 소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각 내용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실제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1) 부모님에 대하여

문항 내용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아버지/어머니로서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분이 우리 아버지/어머니였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상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아버지/어머니는 아버지/어머니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아버지/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15.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분노를 느낀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1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0.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신뢰한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5.	만약 아버지/어머니께서 내게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에 대하여

문항내용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나의 친구들은 내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들과 함께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친구들은 내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혼자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친구들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염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친구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의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만약 내 친구들이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5.

◎ 다음은 평소 일상적인 자신의 생활태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각 내용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실제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가 일을 맡기면 믿을 만큼 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완성도가 들쭉날쭉함이 없이 거의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해야 할 일을 곧잘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가 질책하면 아무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둘러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빼먹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3. 길이나 주변을 잘 살핀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것저것 생각나는 말을 늘어놓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한 번에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의 깊은 편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친구들은 규칙을 잘 지키거나 협동하는 면에서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이것저것 손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행동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